

『東醫寶鑑』 滋陰論의 醫易學的 해석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金南一

Analysis on 'Cha Eum Ron' in 『Dong Eui Bo Gam』 in view of 「I Ching」

Kim Nam-il

Through studies on 『Dong Eui Bo Gam』, I have found out that 'Yang Saing' theory in 『Dong Eui Bo Gam』 is based on 'Cha Eum Ron' and 「I Ching」 has much influenced on 『Dong Eui Bo Gam』

1. 서론

『東醫寶鑑』은 조선중기 御醫였던 許浚이 14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 끝에 1610년 완성한 종합의서이다. 허준은 이 책을 통해 당시까지 동북아시아에 존재했던 의학이론, 맥법, 치료법, 경험 처방, 단미 처방, 침구법, 양생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내고 있다. 이 책은 內景(4권), 外形(4권), 雜病(11권), 湯液(3권), 鍼灸(1권) 등 다섯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內景篇에서는 身形, 精氣神, 五臟六腑 등 인체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外形篇에서는 頭, 面, 目, 胸, 脇 등 외형으로 드러난 것들을 다루고 있다. 雜病篇에서는 질병의 진단으로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風寒暑濕燥火, 內傷, 虛勞, 霍亂, 瘧疾, 癰疽, 諸瘡, 救急, 婦人, 小兒 등 제반 질병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湯液篇에서는 湯液에 대한 總論에 해당하는 湯液序例에서 약물의 사용 원칙을 말하고, 그 뒤에 약물을 水, 土, 穀, 人, 魚, 蟲, 草, 木, 玉, 石 등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마지막 鍼灸篇에서는 침과 뜸의 원리와 혈자리, 치법 등을 논하고 있다. 다섯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적 체계를 통해 『東醫寶鑑』이 질병의 발생 이전에 養生하는 것을 중요하

계 여기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양생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질병 발생 이전의 양생과 관련하여 특히 이 논문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 滋陰論이 중요하게 수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의학적으로 양생의 원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滋陰論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滋陰論이 醫易學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이 논문에서는 허준의학의 특징이기도 한 “養生論의 한의학적 수용”의 요점이 되는 滋陰論을 醫易學적으로 해석을 가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2. 인체에서의 滋陰의 의미

滋陰은 育陰, 養陰, 補陰, 益陰이라고도 하는데, 陰虛證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陰虛證이란 陰陽 가운데 陰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乾咳, 咳血, 潮熱, 盜汗, 口乾, 咽燥, 腰痠遺精, 頭暈目眩, 手足心煩熱 등을 말한다. 이러한 陰虛證을 滋陰시켜 治療하는 방법은 중국 元나라 때의 의학자인 朱震亨(1281~1358)에 의해 창시되었다. 朱震亨은 30세에 『素問』을 읽기 시작하였는데, 후에 陳師文(宋代의 의학자. 『校正太平惠民和劑局方』을 만들었다) 등이 교정한 方書들을 읽었고, 36세에는 許文懿(朱子の 四傳弟子)에게서 理學을 배웠다. 44세에는 羅知悌(1243~1327)에게 간청하여 의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羅知悌는 劉完素(1120~1200)를 私淑하고 李杲(1180~1251), 張從正(1156~1228)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었다. 羅知悌는 朱丹溪에게 “醫學之要, 必本於素問難經, 而濕熱相火爲病最多”라고 하였다. 이처럼 朱震亨과 劉完素는 간접적인 師承關係에 있었으므로 朱震亨은 劉完素의 火熱이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의학사상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다.

朱震亨의 학술사상의 요지는 “陽常有餘, 陰常不足”이다. 그는 『黃帝內經』에 근거하여 ‘相火의 有常’은 생리적인 작용이며 이것은 인체가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이 火의 작용이 아니면 생명활동을 할 수 없다. (人非此火不能生)”라고 말하였다. ‘相火의 有變’은 병리적인 작용으로 “相火妄動(상화가 함부로 날뛰)”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色慾에 자극을 받아 망동(有餘)하기 쉽다는 뜻이며, 이러한 망동된 相火의 작용이 지나치면 陰精을 소모시켜 질병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養生에 있어서 相火가 妄動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며 음식과 색욕을 절제하여 ‘陰分’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상에 있어서도 그는 滋陰降火하는 약재를 쓸 것을 주장하였고 이 때문에 그를 ‘養陰派’ 또는 ‘滋陰派’라는

부르는 것이다.

『東醫寶鑑』에서도 朱震亨의 滋陰論을 계승하여 陰虛證을 치료하기 어려운 병으로 인식하고 있다. 먼저 『東醫寶鑑·雜病·火』에서 “陰虛火動者難治”라는 제하에 陰虛證의 치료가 어려움을 설하고 있다.

“근세에 陰虛火動의 질환을 열 가운데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무릇 그 시작에는 음식은 예전과 같고 起居도 평상시와 같지만, 오직 가래 기침을 한두번 하는 것뿐이기에 스스로 병이 없다고 말하고 병을 숨기고 의사를 꺼려하니, 몸이 죽어가지만 깨닫지 못한다. 점점 커져서 침상에 눕게 됨에 이르러서는 단단한 어름이 이미 이르게 되어서 가히 다시 구제할 수 없게 된다.”¹⁾

陰虛火動이란 문자 그대로 陰이 虛해져 火가 動하는 것을 말하니, 즉 陰虛로 인해 나타나는 제반 熱證을 말한다. 이 증상은 음식, 기거 등은 병이 생기기 전과 같고 다만 가래 기침만 한두번할 뿐이기에 병이 없다고 느끼지만, 이것은 병이 깊이 든 것이다. 이 병을 가벼이 여기고 치료에 소홀히 하면 병이 나타날 때 건잡을 수 없게 되니, 이것은 『周易·乾』의 “履霜堅冰至”의 말처럼 침상에 눕게 됨에 이르러서 단단한 어름이 이미 이르게 된 것과 같아 구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東醫寶鑑·雜病·積聚』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陰虛之難補, 久積之難除”라고 陰虛를 難治로 꼽고 있는 것이다.

『東醫寶鑑』에서는 인체가 地水火風의 四大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 가운데 水에 해당되는 것은 精血津液으로 인체의 陰的 요소들이다. 이것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이기에 없어서는 안된다. 『東醫寶鑑·雜病·虛勞』의 “人身陽有餘陰不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天은 陽으로 地의 밖을 운행하고, 地는 陰으로 가운데에 거하니, 天의 大氣가 이것을 들어준다. 日은 차있는 것으로 양에 속하여 月의 밖을 운행하고, 月은 결손되는 것으로 陰에 속하여 日의 빛을 품부받아야 빛을 낸다. 사람은 天地의 기를 받아서 태어나는데, 天의 陽氣는 氣가 되고, 地의 陰氣는 血이 된다. 그러므로 陽은 항상 남음이 있고, 陰은 항상 부족하며, 氣는 항상 남음이 있고, 血은 항상 부족하다.”²⁾

1) 近世陰虛火動之疾, 十無一活何也. 蓋其始也, 飲食如舊, 起居如常, 惟痰嗽一二聲, 自謂無恙, 諱疾忌醫, 滅身無悟, 及蔓延日久, 倒臥於床而堅冰已至, 不可復救.

2) 天爲陽而運於地之外, 地爲陰而居乎中, 天之大氣舉之. 日實也, 屬陽而運於月之外. 月缺也, 屬陰稟日之光以爲明. 人受天地之氣以生, 天之陽氣爲氣, 地之陰氣爲血, 故陽常有餘

“사람의 일신은 陽은 항상 남음이 있고, 陰은 항상 부족하며, 氣는 항상 남음이 있고, 血은 항상 부족하다. 그러므로 滋陰하고 補血하는 약을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빠뜨려서는 안된다.”³⁾

“사람의 몸은 陽은 항상 남음이 있고, 陰은 항상 부족하다(人身陽有餘陰不足)”는 논리를 자연계 자체에서 찾고 있다. 자연계 자체의 속성으로 陰이 부족하므로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滋陰시키는 약을 항상 빠뜨리지 말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四時와 滋陰論

春夏秋冬四時は 자연의 변화를 반영하는 가장 큰 표상이다. 인체는 시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양생의 법도이다. 『東醫寶鑑』에서는 사계절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黃帝內經·素問·四氣調神大論』에 나오는 문장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 『東醫寶鑑』에서는 이 문장을 통째로 인용하여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⁴⁾ 이러한 원칙은 脈, 治療法 등에 골고루 존재한다. 四時에 따라 기본이 되는 脈象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든지, 봄에 吐法, 여름에 汗法, 가을에 下法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등이 그러한 원칙이다.

특히 사계절 가운데 여름이 조섭하기 힘든 일면이 있는데, 이것은 醫易學的 해석이 가능하다. 『東醫寶鑑·內景·身形』의 “四時節宣”에서는 이를 상론하고 있다.

“사시 가운데 오직 여름이 조섭하기 어려우니, 숨은 陰이 안에 있어 배가 冷滑하므로 補腎하는 湯藥이 없어서는 안된다.”⁵⁾

而陰常不足, 氣常有餘而血常不足也.

3) 人之一身陽常有餘陰常不足, 氣常有餘血常不足, 故滋陰補血之藥, 自幼至老, 不可缺也.

4) 春三月, 此謂發陳, 天地俱生, 萬物以榮, 夜臥早起, 廣步於庭, 被髮緩形, 以使志生, 生而勿殺, 予而勿奪, 賞而勿罰, 此春氣之應, 養生之道也. 逆之則傷肝, 夏爲寒變, 奉長者少. 夏三月, 此謂蕃秀, 天地氣交, 萬物華實, 夜臥早起, 無厭於日, 使志無怒, 使華英成秀, 使氣得泄, 若所愛在外, 此夏氣之應, 養長之道也. 逆之則傷心, 秋爲痲瘧, 奉收者少, 冬至重病. 秋三月, 此謂容平, 天氣以急, 地氣以明, 早臥早起, 與鷄俱興, 使志安寧, 以緩秋刑, 收斂神氣, 使秋氣平, 無外其志, 使肺氣清, 此秋氣之應, 養收之道也. 逆之則傷肺, 冬爲殭泄, 奉藏者少. 冬三月, 此謂閉藏, 水冰地坼, 無擾乎陽, 早臥晚起, 必待日光, 使志若伏若匿, 若有私意, 若已有得, 去寒就溫, 無泄皮膚, 使氣亟奪, 此冬氣之應, 養藏之道也. 逆之則傷腎, 春爲痲厥, 奉生者少.

즉 여름은 숨은 음이 안에 있는 離卦(☲)와 같아서 항상 배가 冷滑하므로 補腎하는 약물로 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補腎은 滋陰을 의미한다. 이 문장에 이어서 정액의 배설을 조심하고 성교를 삼가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약물과 금기를 병행하는 것을 치료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시간에 따라 질병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이러한 논리는 『東醫寶鑑·雜病·火』의 “亡血致惡寒發熱”, 『東醫寶鑑·外形·足』에도 보인다.

“5월에는 陽氣가 表에 있어 胃가 虛冷하니, 陽氣가 안에서 미미하여 冷氣를 이기지 못하므로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다. 11월에는 陽氣가 裏에 있어 胃가 煩熱하니, 陰氣가 안에서 弱하므로 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옷을 벗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陰脈이 遲澁하므로 亡血임을 알 수 있다.”⁶⁾

“痿病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5월, 6월, 7월의 때이니, 午는 少陰君火의 자리이고, 未는 濕土庚金이 伏火하고 있는 곳이고, 申은 少陽相火의 분야이다. 그러므로痿病을 앓는 사람의 脈은 浮大하다.”⁷⁾

첫문장에서는 亡血 즉 陰血이 없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 惡寒發熱에 이르게 된 기전을 易學的으로 풀어내고 있다. 5월은 姤卦()에 해당하고 11월은 復卦()에 해당한다. 여름에 해당하는 5월에도 옷을 입으려 하고 겨울에 해당하는 11월에도 옷을 벗으려 하는 것을 亡血에 의한 것으로 보고 치료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東醫寶鑑』滋陰論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4. 生老病死와 滋陰論

『東醫寶鑑』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장년이 되고 늙고 죽게 되는 과정을 陰氣가 줄어들어가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黃帝內經』의 관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東醫寶鑑·內景·身形』의 “人氣盛衰”에서는 “사람의 나이가 40이 되면 陰氣가 저절로 반으로 줄어들어 起居가 쇠퇴하게 된

5) 四時惟夏難調攝, 伏陰在內, 腹冷滑, 補腎湯藥不可無.

6) 五月之時, 陽氣在表, 胃中虛冷, 以陽氣內微, 不能勝冷, 故欲着複衣. 十一月之時, 陽氣在裏, 胃中煩熱, 以陰氣內弱, 不能勝熱, 故欲裸其身. 又陰脈遲澁, 故知亡血也.

7) 痿之作也, 皆五月六月七月之時. 午者少陰君火之位, 未者濕土庚金伏火之地, 申者少陽相火之分, 故病痿之人, 其脈浮大.

다. 나이가 50이 되면 몸이 무거워지고 귀와 눈이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된다. 60세가 되면 陰痿가 되고 기운이 크게 쇠퇴하고 九竅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아래가 虛하고 위가 實하여 눈물과 콧물이 모두 나오게 된다.”⁸⁾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곳의 “年老無子”에서도 여자를 7數에 배속하고 남자를 8數에 배속하여 생식능력의 盛衰를 논하고 있다. 즉, 여자는 $2 \times 7 = 14$ 세에 생식능력을 획득하여 $7 \times 7 = 49$ 세에 월경이 멈추면서 생식불능이 되고, 남자는 $2 \times 8 = 16$ 세에 생식능력을 획득하여 $8 \times 8 = 64$ 세에 생식불능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陰氣의 쇠퇴에 의해서 초래된다. 울 때 눈물이 안나오고 웃을 때 눈물이 나온다면 귀에서 소리가 난다면 하는 등의 노인들에게 보이는 常見證이 “血衰”에 의거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衰老하는 과정을 精血이 모손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노인이 되어 눈이 침침해지는 이유에 대한 역학적 해석이 가능하게 해준다. 『東醫寶鑑·外形·老人眼昏』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린아이는 水가 위에 있으므로 눈이 명료하게 보인다. 노인은 火가 위에 있으므로 눈이 혼미하다.”⁹⁾

어린아이의 水가 위에 있다는 것은 水火既濟()의 象을 의미하고, 노인은 火가 위에 있다는 것은 火水未濟()의 象을 말한다. 水가 위에 있는 既濟卦는 기운의 升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눈이 명료하게 보이고, 未濟卦는 火가 위에 있고 水가 아래에 있어서 陰陽離隔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위에 떠 있는 火는 虛火가 되는 것이다.

5. 질병과 滋陰論

인체의 건강한 상태는 원활한 升降에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升降의 본질은 水升火降이다. 허준이 “升降失常爲病”¹⁰⁾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소변의 赤白濁은 이와 같은 기전으로 설명이 된다. 『東醫寶鑑·內景·小便』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8) 人年四十, 陰氣自半也, 起居衰矣. 年五十, 體重耳目不聰明矣. 年六十, 陰痿氣太衰, 九竅不利, 下虛上實, 涕泣俱出矣.

9) 童子水在上, 故視明瞭. 老人火在上, 故視昏睡.

10) 『東醫寶鑑·雜病·辨證』.

“여름에는 土가 건조하고 水가 혼탁하며, 겨울에는 土가 단단하고 水가 맑아진다고 선현이 말하였는데, 이러한 이치이다. 水火既濟하면 土가 저절로 단단해져 그 흐르는 것이 맑아진다. 小便白濁은 모두 脾에 虛熱이 있는데 腎이 부족하여 土邪가 水를 간섭한 것이다.”¹¹⁾

즉 脾에 虛熱이 생겼을 때 腎이 부족하게 되면 土克水하게 되어 소변이 白濁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때는 虛한 腎水를 보하는 치료가 최선이다.

虛勞의 治法을 논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水火의 승강이 원할해야 한다. “허손은 모두 水火不濟로 말미암는다. 火가 降하면 血脈이 和暢하게 되고, 水가 升하면 精神이 充滿해지니, 단지 調和心腎시키는 것을 위주로 삼고 脾胃를 보하는 것을 겸하면 음식맛이 살아나고 精神氣血이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¹²⁾ 여기에서 心은 인체에서 火, 腎은 인체에서 水를 의미한다. 허준이 心虛證치료에 사용한 大五補丸, 古庵心腎丸, 究原心腎丸 등은 모두 水火交濟를 그 목표로 하고 있는 滋陰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6. 『東醫寶鑑』에서 제시하고 있는 滋陰의 방법

『東醫寶鑑·內景·身形』의 丹田有三, 按摩導引, 還丹內煉法, 搬運服食, 背有三關, 保養精氣神 등에서는 先天의 氣를 기르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腎竅와 통하는 二穴에서 나온 침을 삼키는 氣歸丹田이 요체이다. 이 과정은 몸의 陰氣를 기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陰氣는 그대로 인체의 先天의 기운이 되는 것이다.

“先賢格言”에서는 色慾을 절제하여 滋陰할 것을 말한다. “오직 사람의 생명은 天地와 더불어 나란하다. 坤道는 여자를 만들고 乾道는 남자를 만드니, 짝하여 夫婦가 되어 生育이 관련된다. 血氣가 바야흐로 강건할 때가 오직 그 교접할 때이다. 禮로써 이루고 때에 합당하게 교접할 것이니, 父子의 친밀함의 요체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저 무지한 사람을 돌아보건데 감정을 따라 욕심을 좇아 오직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

11) 先賢有言, 夏則土燥而水濁, 冬則土堅而水清, 此其理也. 水火既濟, 則土自堅, 其流清矣. 小便白濁, 皆脾有虛熱而腎不足, 土邪干水也.

12) 『東醫寶鑑·雜病·虛勞』의 “虛勞治法”: “虛損皆因水火不濟, 火降則血脈和暢, 水升則精神充滿. 但以調和心腎爲主, 兼補脾胃, 則飲食進而精神氣血, 自生矣.”

위하여 燥毒한 약물로 촉진시킨다.”¹³⁾ 色慾은 인체의 陰氣의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자식을 만들어야 할 때만 사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절제하라는 것이다.

水升火降이 안되서 생기는 제반 증상에 사용하는 처방들인 坎離丸, 坎離膏, 先坎離丸, 後坎離丸, 坎離既濟丸, 既濟湯, 既濟丸, 洗心散 등은 바로 이와 같은 陰虛火動으로 인한 色慾의 망동을 치료하는 처방들이다. 이러한 처방들은 處方名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분히 易學的 요소가 강한 것들이다.

『東醫寶鑑』에서 養性을 위해 힘써야 할 禁忌로 제시한 내용들은 「內景·身形」의 “養性禁忌”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이곳에서는 하루, 한달, 일년, 평생을 단위로 하여 養性을 위해 禁忌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

“하루동안의 금기는 저녁에 배불리 먹지 말라는 것이다. 한달동안의 금기는 그믐에 크게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년동안의 금기는 겨울에 멀리 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평생동안의 금기는 밤에 촛불켜고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¹⁴⁾

『東醫寶鑑』에서는 또한 陰虛로 인한 火旺을 다스리는 방법으로써 心을 다스리는 방법을 권유하고 있다. 心을 다스리라는 내용들은 「內景·身形」의 “人心合天機”, “以道療病”, “虛心合道” 등과 「內景·精」의 “遺泄精屬心”, “夢泄屬心” 등에 고루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火旺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正心, 收心, 養心 등을 들고 있다.

7. 결론

원나라시대에 朱震亨에 의해 처음 제기되어 지금도 질병치료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滋陰論이 『東醫寶鑑』에 어떻게 易學的으로 활용되었을가의 문제를 살펴 보아 저자는 『東醫寶鑑』에서는 朱震亨의 滋陰論을 계승하여 陰虛證을 치료하기 어려운 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특히 이때 四時, 生老病死, 疾病 등의 문제를 易學的 해석을 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滋陰을 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養生의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3) 惟人之生, 與天地參. 坤道成女, 乾道成男, 配爲夫婦, 生育收寄. 血氣方剛, 惟其時矣. 成之以禮, 接之以時, 父子之親, 其要在茲. 睠彼昧者, 徇情縱慾, 惟恐不及, 濟以燥毒氣.

14) 一日之忌暮無飽食, 一月之忌晦無大醉, 一歲之忌冬無遠行, 終身之忌夜不燃燭行房.

8. 참고문헌

-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7.
- 張其成 主編, 『易學大辭典』, 華夏出版社, 1992.
- 朱伯崑 著, 『易學哲學史』, 藍燈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91.
- 『備旨具解 原本周易』 上下, 서울 세창서관 발행, 1985.
- 李正浩 編, 『周易字句索引』, 국제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78.
- 韓國周易學會 編, 『周易의 現代的 照明』, 범양사 출판부, 1992.
- 廖名春·康學偉·梁書弦 著, 『周易研究史』, 湖南出版社, 1991.
- 楊力, 『周易과 中國醫學』, 法仁文化社, 서울, 1995.
- 신동원 외,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들녘, 서울, 1999.
- 李浚川 편, 장경선, 권영규, 김남일 역, 『醫易學思想』, 법인문화사, 서울, 2000.